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 만전

전주시,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빈틈없는 안전 관리 행정력 집중

전주시가 10월 전주에서 열리는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및 빈틈없는 안전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앞두고 행사장 주변 도로 및 가로 환경 정비, 안전 관리,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 준비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는 △행사장 안전 관리 지원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 △대회장 인근 주요 도로 및 가로수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관리 및 전북대 버스회차지 이전 △쓰레기 집중 수거 △숙박·식음위생업소 관리 등 체계적인 대책을 통해 대회 방

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덕진소방서 등과 민관 합동으로 대회 전 주요 행사장인 전북대학교 대운동장 기업전시관과 진수당, 삼성문화회관, 실내체육관 등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답게 △마당창극 '오반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전주한옥마을 거리공연인 'SING STREET' △조선잡살공인 △전통성당 미디어퍼사드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회 참가자들에게 전주 특유의 깊고 풍부한 문화를 체험할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대회장 주변 도로 정비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약 17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10월 중순까

지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안덕원로 등 대회 주요 이동 동선이 포함된 7개 노선(L=8.76km)의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고속도로 진입로와 한옥마을 일대의 4개 노선 및 교통섬 일원(L=21km)의 가로수 511주의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운고울로와 건산로 등 167개 노선에 대한 제초 작업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대회 기간 중 차량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덕진공원에서 전북대 인근 3개 구역에 교통 단속 차량을 집중 배치하고, 10여 명의 교통 봉사자들을 덕진공원 입구에서 전북대 예술대까지 4개조로 배치한다.

동시에 시는 대회 기간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13개소 175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주시 직원 250여 명을 포함한 300여 명을 동원해 주차

관리 및 안내에 나선다. 또, 대회 기간 기존 전북대학교 내 버스 회차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버스 회차지 이전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14일부터는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행사장과 전주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집중 정비하고, 적치 쓰레기를 사전에 정비할 계획이다. 대회 기간에도 환경 관리 인력을 집중 배치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유지하고, 행사 종료 후에는 잔재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전주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전주를 국제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방문객과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청년문화센터 조감도

전주시, 청년문화센터 조성 탄력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 최종 선정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에 지역 청년들이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청년문화센터가 들어선다.

전주시는 올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한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팔복동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산업단지 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 여필했으며,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현장 실사를 통해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공모 발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오는 2027년까지 팔복동(췌류비스) 운동장 부지에 국비 60억 원과 도비 8억 원 등 총사업비 215억 원을 투

입해 연면적 4000㎡(약 1210평)에 지상 4층 규모의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센터 내에는 △실내클라이밍 및 VR/AR 스포츠센터 △디자인혁신지원센터 △교육장 등 청년들의 꿈과 역량을 키울 혁신적인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130억 원을 투자해(췌류비스)로부터 운동장 부지 약 2만㎡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청년문화센터 건립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 내에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전주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후거점산업단지인 팔복동 산단을 혁신의 공간으로 바꿔 강한 경제 전주를 이끌어갈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더 안전해진다

9억원 투입 13개 초등학교 대상 개선사업 추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로 했다.

시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확보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금 9억 원을 활용해 전주시역 1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는 오는 10월 중 용의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한 옐로카펫을 설치할 예정이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와 맞닿은 보도와 벽면에 노란색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76.4%가 옐로카펫의 감속 유도 효과를 체감할 정도로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옐로카펫 설치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인도변 방호울타리 △약천 후 시 시야 확보를 돕는 LED 박막신호등 설치 △차량 접근을 차단하는 교내 전용보행로 조성 등을 순차적으로

완료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 지도 인력을 배치해 꼼꼼한 현장관리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등하교 시간대 교통지도와 안전교육을 지원할 스물손 어린이 안전지킴이를 투입했으며, 현재 37개 학교에서 70명의 안전지킴이가 연말까지 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시는 녹색어머니연합회와 모범운전자연합회, 대한청소년보호선도회 등 민간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 스물손 조성을 위한 교통캠페인

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현재까지 26억 원을 투입해 33곳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중점 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등을 완료했으며, 내년까지 1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22곳을 추가 정비할 예정이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장은 "전주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거닐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일상 속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재난 대응력 향상 위한 '완산구청 소방 합동훈련'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청사 내 직원 및 민원인의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소방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완산구청 직원, 민원인, 119안전센터 소방대원 등 1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완산구청 소방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사 시 소방안전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화재 발생 및 신고 △대피 유도 △초기 화재 진압 △중요물품 반출 △환자 후송 및 응급처치 △소방대 화재

진압 순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다.

훈련 종료 후에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질식소화포 사용 방법, 영유아·성인 하임리히법 설명 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며, 119안전센터의 유익한 교육 및 강령으로 마무리 되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이번 소방 합동훈련을 통해 소방서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



전주시 완산구는 직원 및 민원인의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소방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번 훈련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

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민·관 합동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전주시는 26일 시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전주시청 직원과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관이 협력하여 진행되며, 주요 대상 지역은 불법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단속반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각 조별로 배정된 동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며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 등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정리하고,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쓰레기봉투 등을 직접 파봉하며 불법투

기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날 단속 중 경미한 분리배출 위반 행위를 계도 조치하였으며,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한 건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조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완산시민경찰연합회와 취약지 청소 및 순찰·계도, 불법투기 합동단속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매월 한 차례씩 현재까지 총 22회에 걸쳐 불법투기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